



정부가 먼저 기업에 세금을 매기고, 여기에 해외 소비세까지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는 미국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환경을 만드는 반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세금 부담이 거의 없어 외국 기업이 더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다. 결국, 미국의 세금 구조는 해외 생산을 장려하면서도 국내 생산에는 불이익을 주는 셈이다.

이런 구조를 해결하려면 '국경조정세(border-adjustment tax)'라는 새로운 세금 정책이 필요하다. 모든 수입품에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해외로 수출될 때는 세금을 면제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미국 기업들이 더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고, 국내 생산이 불리했던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10년 동안 수천억 달러의 막대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연구개발(R&D) 투자 비용을 세금에서 전액 공제해 주거나, 공장과 같은 물리적 자본에 대한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야말로 미국의 경제를 공정하게 만들고, 국내 생산과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다. 즉, 관세 정책을 활용해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생산을 가로막는 불공정한 세금 구조를 개혁하며,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추후 미국 대통령이 국경조정세와 같은 관세 정책을 정교하게 다룬다면, 미국 경제를 부흥시키고, 산업을 활성화하며, 가정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 이예담

출처: <https://www.heritage.org/trade/commentary/the-art-the-tariff-deal-another-way-trump-can-boost-our-economy>